

농어촌 청소년 생활실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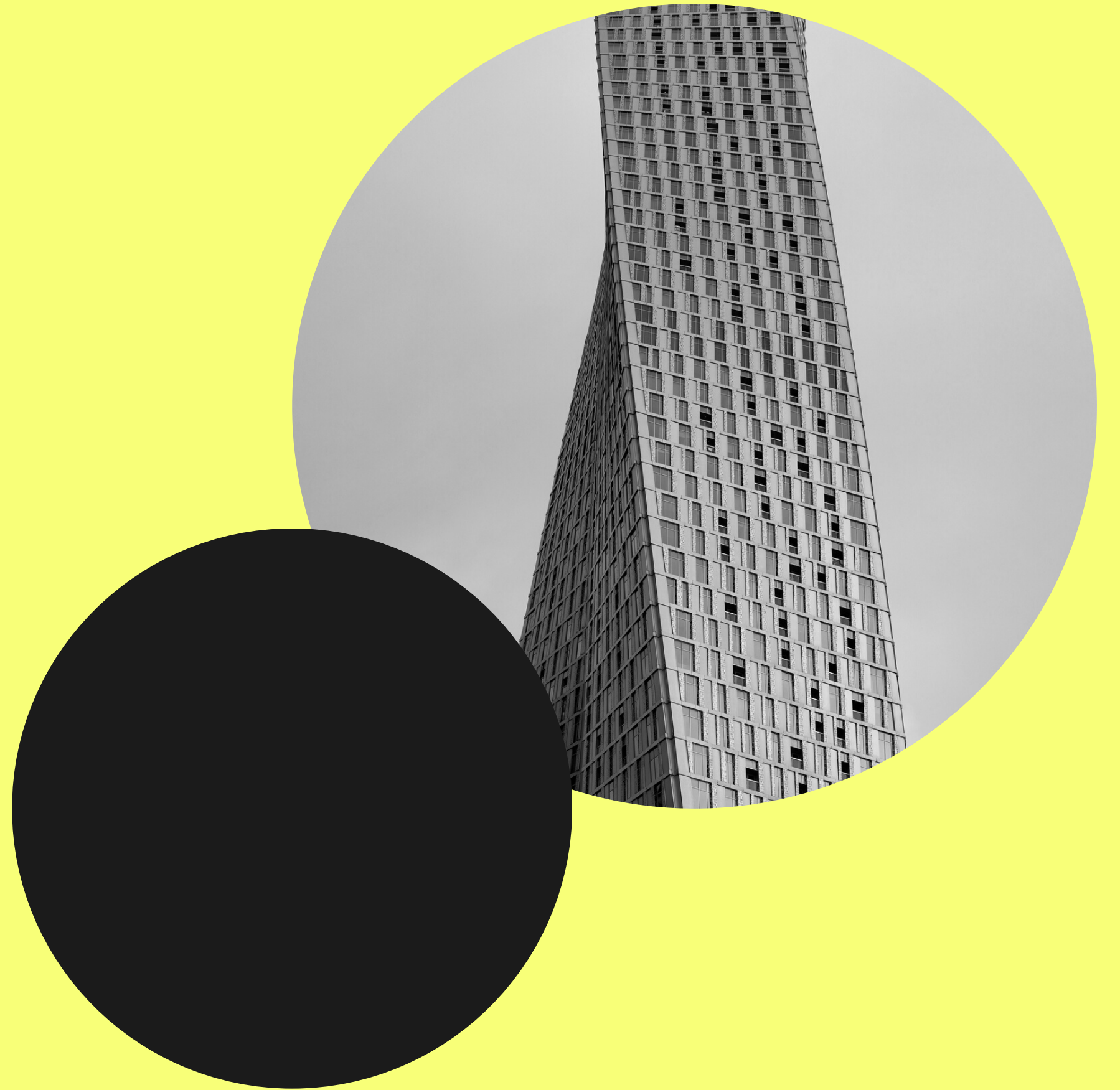
: 경기도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경험을 중심으로

김영주, 김주온, 박경주, 안선영, 장은지

순서

1. 연구 개요
2. 문헌연구분석 : 농어촌청소년 생활
현황 및 정책동향
3. 심층면접분석 1 : 농어촌 면단위 청소년
생활현황 면접 결과
4. 심층면접분석 2 :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실험 사례 분석 결과
5. 정책 제언

연구 개요



추진 배경

- **농어촌 지역 연구 및 지원의 필요성**

1. 현재의 농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격차 등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농어촌 청소년들의 성장 동력 약화와 사회 실험 확대**

1. 농산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생활 인프라 축소 영향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자기탐색과 성장 기회가 취약해지는 상황임.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임.
2. '농어촌청소년들의 삶의 질 관리와 성장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농어촌 청소년 기본소득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충북 옥천, 경기도 연천 등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된 바 있음.

연구 내용

• 농어촌청소년 생활실태 / 정책동향 분석(문헌연구)

1. 전국 단위 서베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농어촌 청소년 생활실태 현황 문헌 분석 (삶의 질, 교육경험과 욕구, 가족과 또래관계, 사회/국가에 관한 관점, 진로와 이행 전망, 청소년의 사회 및 정치 참여, 인권감수성과 인권침해, 다문화의식, 코로나 경험 등 총 9개 영역)
2. 청소년 기본계획 및 청소년 법률 내용 분석을 통한 정책 동향 분석

• 청산면 청소년 생활실태 / 기본소득 경험 분석(면접)

1.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분석 범주 설계
2.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인터뷰 진행
3. 시간사용, 공간사용, 관계망 형성, 시민 의식 등 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4.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인식, 사용경험, 관계망, 부모인식 등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청소년 경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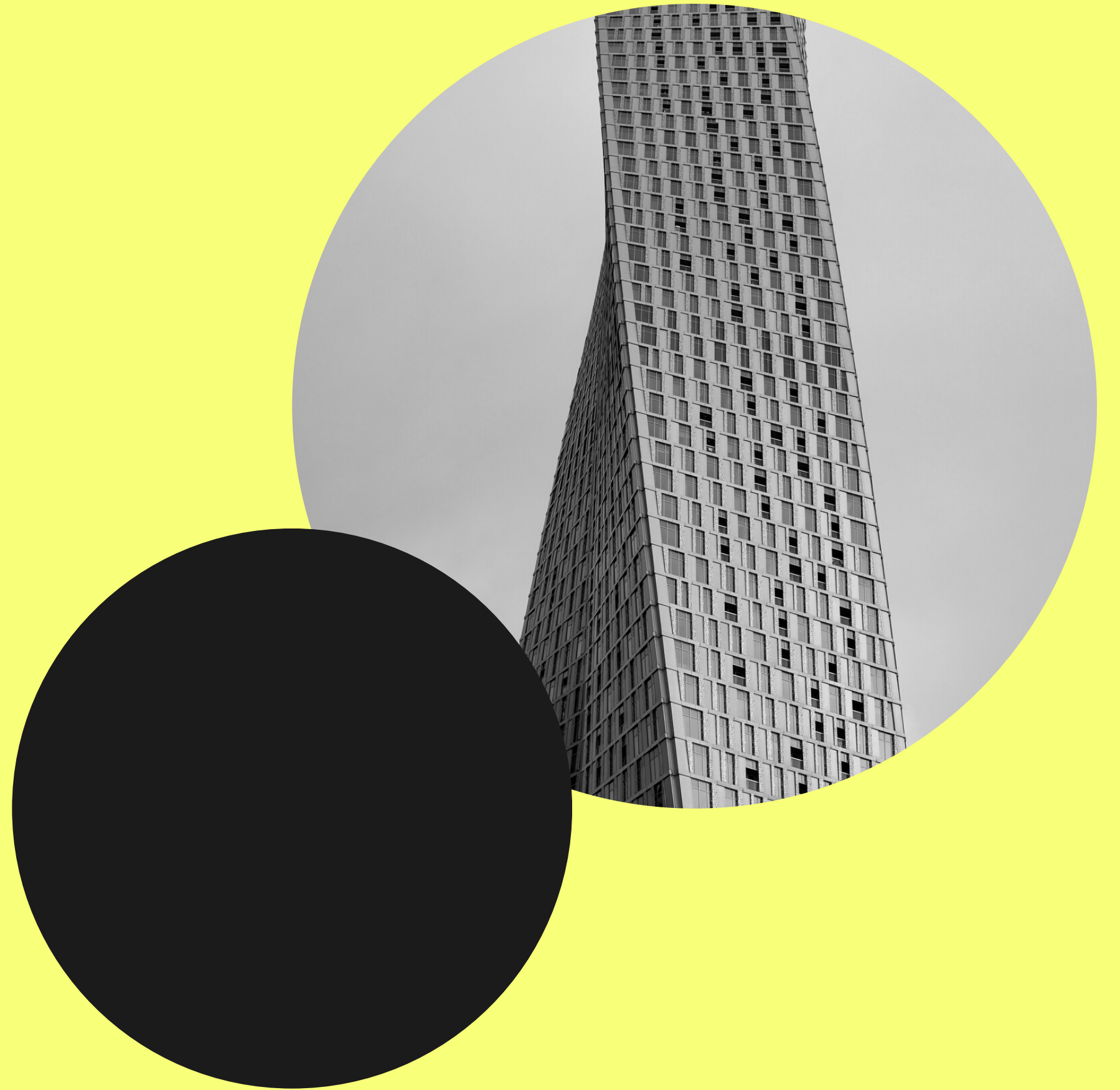
• 종합 및 제언

1. 문헌 연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 분석 및 정책 제언

연구 방법

구분	연구방법	주요 내용
① 농어촌청소년 선행연구조사	문헌분석 및 통계조사	• 농어촌청소년 실태 선행연구 조사
		• 농어촌청소년 실태 통계자료 조사
② 정책동향	문헌분석	• 정부 청소년기본계획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농어촌 청소년 정책 동향 조사 분석
③ 농촌기본소득 청소년경험실태조사	선행사례분석	• 충북 옥천 등 청소년 기본소득 지급 선행사례 조사 분석
	인터뷰 질적 분석	• 표본 초4(만10세)~고3(만18세)158명의 청소년 중 22명/나이 별 남녀 각 1명씩(탈학교 및 탈가정 청소년이 있을 수 있음)
		• 초/중/고 자녀의 학부모 5명(기본소득의 개별성의 원칙에 따라 청소년이 직접 수령해야 하나 경기도 시범 사업에서는 만 18세 이하 주민은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함)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 운영 관계자(공무원 등)2명
④ 전문가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현지 상황 가이드 • 연구설계의 정합성 검토 및 정책 제언

문헌연구분석



농어촌청소년 연구의 흐름

2000~2018 주요 주제들

- 도시와 농촌청소년 간의 교육 격차
- 농어촌청소년의 교육복지
- 농어촌청소년의 학교적응 문제 및 농촌학교 활성화 방안
- 농촌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복지, 여가

2011~2018 새롭게 등장한 주제들

- 농촌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 농촌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진로성숙도

도시와 농촌 청소년 간의 교육격차의 주제는 감소하는 추세.
삶의 만족도, 복지, 여가 등의 주제는 꾸준히 연구됨.
방법론적으로 질적 연구들이 증가함.

주요 비교 분석 문헌 요약

〈표 II-1〉 자료의 표본 수, 지정성별비율, 지역비율

(단위: 명, (%))

보고서	① 농업인력 유입확대를 위한 농촌청소년 실태조사	②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③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변화 연구	④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저자/ 책임연구자	오해섭	김기현	오해섭·문호영	김영지·황세영· 최홍일
연구주체 및 책임기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발간 시기	2020년	2020년	2022년	2020년
표본 수	1,207	7,170	5,740	8,623
지정성별비율	남 654(54.2) 여 553(45.8)	남 3,736(52.1) 여 3434(47.9)	남 2,991(52.1) 여 2,749(47.9)	남 4,473(51.9) 여 4,150(48.1)
지역비율	경기 523(43.3) 전북 684(56.7)	대도시 3,076(42.9) 중소도시 2,811(39.2) 농산어촌 1,283(17.9)	대도시 2,250(39.2) 중소도시 2,640(46) 읍면지역 850(14.9)	대도시 3,331(38.6) 중소도시 4,147(48.1) 읍면지역 1,144(13.3)

주요 비교 분석 문헌 조사영역

〈표 II-2〉 자료의 조사영역

보고서	농업인력 유입확대를 위한 농촌청소년 실태조사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변화 연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가치관 -생활실태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식 -진학, 진로의식 -다문화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과 삶의 질 -가치관 -참여, 사회인식 -학습과 활동 -진로, 직업탐색 -사회진입, 이행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관 -가족과 결혼관 -진로와 직업관 -학교와 친구관 -사회와 국가관 -다문화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일반과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학대 -가정환경,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복지 -교육, 여가, 문화 활동 -경제적 착취

주요 비교 분석 문헌 종합 영역

〈표 II-3〉 조사영역의 지도

조사내용	설명
(1) 삶의 질	심리·육체적 건강부터 청소년이 환경과 맺는 관계 등에 관한 만족도
(2) 교육경험과 욕구	청소년들의 교육(학교)경험과 교육욕구
(3) 가족과 또래관계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의미한 관계로서 가족과 또래관계에 대한 인식
(4) 사회/국가에 대한 관점	청소년들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인식 (예: 우리사회는 공정한가?)
(5) 진로와 이행전망	청소년들의 희망진로와 농산업에 대한 인식
(6) 청소년의 참여 (문화와 사회 및 정치)	청소년들의 문화 및 정치사회적 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정도
(7) 인권감수성과 인권침해	청소년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침해 경험
(8) 다문화의식	다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정도
(9) 코로나경험	청소년들의 코로나 이후의 변화와 경험

〈표 II-4〉 조사영역1: 삶의 질

사영역 ¹⁵⁾	조사내용	조사항목
) 삶의 질	① 주관적 안녕감	행복, 근심과 걱정, 우울, 삶의 만족도, 일에 대한 자부심
	② 수면	수면시간 충분한 수면 정도
	③ 신체활동	신체활동 여부 신체활동시간
	④ 주거환경	집, 동네, 생활안전에 대한 만족도 및 여가와 산책, 운동 환경
	⑤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⑥ 보호자의 경제·문화자본	보호자의 교육, 소득 등의 정도
	⑦ 가족구성	가족구성원 및 가구형태

• 세부 영역 : 삶의 질

어제의 근심, 걱정 정도(4.01점) . 우울 정도(3.43점)로 가장 높음.

큰 차이없음.

운동과 야외활동의 낮은 참여율

생활에서의 안전 영역은 만족도 높음(신체활동 참여는 낮지만 환경에 대한 만족도 높음)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대도시청소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일관된 격차)

중졸 다수, 월평균 200~300만원 미만, 자가 소유 비율 낮음, 기초생활보장제도 높은 수급률

모친 기반의 한부모 가족 비율 높음

청소년 사업과 정책의 부재는 곧 지역 청소년에게는 입시 부담으로 이어짐. 수도권과 달리 지역 청소년들은 대학 외에는 지역 내 다른 선택지가 거의 부재한 상황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역 내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단순 기숙 형태로 입시 위주의 학습 형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지역 청소년의 선택지를 좁히는 큰 원인으로 작용함.

• 세부 영역 : 교육경험과 욕구

〈표 II-5〉 조사영역2: 교육(학교)경험과 욕구

조사영역 ³⁴⁾	조사내용	조사항목
(2) 교육경험과 교육욕구	교육경험	①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②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③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④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⑤ 현재 학업성취도
		⑥ 사교육경험
		⑦ 진로교육경험
		⑧ 학업중단: 학업중단경험, 중단이유,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 이용 경험
	교육욕구	⑨ 희망교육수준
		⑩ 평소 희망하는 교육활동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평균 대비 낮음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평균 대비 낮음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평균 대비 낮음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평균 대비 낮음

대도시 대비 낮음. (중학교 수학에서 대도시에 비해 높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 나타남)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평균 대비 낮음

진로상담은 경험률이 낮지만, 기타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경험률을 가짐

'공부하기 싫음'의 이유로 학업중단 / 학교밖 시설 이용경험 전무

4년제 졸업 희망 / 대학원 이상은 낮음

해외탐방-진로탐색-문화교육(이전과 다른 진로프로그램 요구)

• 세부 영역 : 가족과 또래관계

〈표 II-6〉 조사영역3: 가족과 또래관계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3) 가족과 또래관계	①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보호자와의 활동
	②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
		고민 의논대상

큰 차이 없음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활동일수(보호자와의
긴밀한 물리적 활동 지속)

중소도시에 비해서 높게, 대도시에 비해서 낮게 나타남

의미있는 타자 - 친구

• 세부 영역 : 사회/국가에 대한 관점

〈표 II-7〉 조사영역4: 사회(국가)에 대한 관점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4)사회 (국가)에 대한 관점	① 사회의 공정성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② 사회에 대한 신뢰	우리 사회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
	③ 다양성의 인정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④ 부정부패 정도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이다

미세하지만 높은 긍정

높은 부정

높은 부정

높은 부정

• 세부 영역 : 진로와 이행전망

〈표 II-8〉 조사영역5: 진로와 이행전망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5)진로와 이행전망	① 진로와 직업	직업선택 기준 ⁶³⁾
		향후 대학진학 계획
		희망하는 직종
	② 농산업 관련 진로와 직업	농산업 관련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
		구체적인 근무 희망 분야
		농촌과 농산업에 대한 미래인식
		농산업 분야 직업에 대한 관심
		농산업 관련 진학 희망여부
		농산업 관련 창업 희망여부
		농산업 관련 진로체험 참여 희망여부

능력보다는 적성과 자아성취의 문제, 미래의 안정과 장래성 보다는 경제적 수입을 고려

60%이상이 대학진학 고려

사무직, 전문직, 예술방송직 등 (농산업분야는 기타 제외 최하순위)

적성, 장래성, 경제적 수입 순

농장운영, 농산물유통판매 순

미래가 밝다고 인식

농산업 관련 직업, 진학, 창업에는 높은 부정응답률

농산업 관련 직업, 진학, 창업에는 높은 부정응답률

농산업 관련 직업, 진학, 창업에는 높은 부정응답률

텃밭가꾸기, 농기계실습, 식물화분재배, 농장체험 순

• 세부 영역 : 정치사회참여

〈표 II-9〉 조사영역6: 청소년의 정치·사회참여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6) 청소년의 정치사회참여	① 사회참여의 필요성	청소년도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② 참여효과에 대한 신뢰	참여는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③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다.
		정치와 사회문제에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

미세하지만, 대도시에 비해 낮은 긍정응답률
(대도시 3.20 / 농산어촌 3.13)

미세하지만, 대도시에 비해 낮은 긍정응답률
(대도시 3.13 / 농산어촌 3.08)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긍정응답률 (대도시 4.49 / 농산어촌 4.27)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긍정응답률(대도시 43.7 / 농산어촌 41.2)

이제껏 농산어촌에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도 고려해야 될 문제임.

• 세부 영역 : 인권감각과 인권침해(1)

〈표 II-10〉 조사영역7: 인권감각과 인권침해경험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7)인권 감각과 인권침해 경험	① 인권감각	인권 관련 기관 인지도: 국가인권위원회
		가정에서 인권을 존중 받는다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 받는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인권을 존중 받는다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인권교육 경험 여부
		인권교육이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에 도움이 되었다.

모든 항목에서 다른 지역의 청소년에 비해 미세하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평균을 반복적으로 나타냄.

• 세부 영역 : 인권감각과 인권침해(2)

② 인권침해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한번 이상의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남.

가장 높은 항목은 지역에 따른 차별

성적인 피해의 항목에서는 평균(2.9) / 여자 청소년 일반(3.0)보다 높은 응답(3.2)이 나타남.

• 세부 영역 : 다문화 의식

〈표 II-11〉 조사영역8: 다문화의식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8) '다문화' 의식	① '다문화'와 국가발전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높은 긍정응답률
	② '다문화'와 친밀성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높은 친밀성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③ '다문화'와 권리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높은 우호	

• 세부 영역 : 코로나 경험

〈표 II-12〉 조사영역9: 코로나 경험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9) 코로나 경험	① 코로나 이후 삶의 변화	전반적인 생활, 가족 및 친구관계, 학교생활, 사회에 대한 신뢰
	② 교육 및 활동 인식	온라인수업 확대 찬반
		온라인 활동(문화예술, 진로탐색 등)
		코로나시대 요구되는 활동
③ 도구의 필요	자기만의 방, 마스크 구비	

농산어촌청소년은 다른 지역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부정적 변화를 균형있게 경험 - 부정응답률과 함께 변화없음의 응답률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 (취업 전반, 진로 전반 등에 있어서 큰 변화 없다는 해석)

온라인수업 / 온라인활동 찬성 높은 응답

진로체험, 신체강화, 해외탐방 순

자기만의 방(물리적 공간) - 장비 순으로 필요하다 / 마스크 구비는 대도시, 중소도시 대비 낮은 응답률

종합

삶의 질

- 근심, 걱정, 우울감
- 낮은 월평균 소득과 생활비
- 전세와 월세 비율이 높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높은 수급률

교육경험

- 낮은 학업성취도
- 낮은 사교육 비율
- 높은 진로 및 체험교육 참여률
- 높은 학업중단경험
(신체건강상,
공부하기 싫음의 이유)
- 학교 밖 지원센터 이용 경험 전무

가족과 또래관계

- 낮은 만족도
- 보호자와 함께 하는 활동은 다수
- 고민을 나눌 주변사람 1순위 '친구' (도시지역은 1순위 '어머니')

사회/국가 관점

- 공정은 지지
- 신뢰, 다양성, 청렴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 경향

진로와 이행전망

- 농산업 관련 진로에 대한 관심, 희망은 전반적으로 낮음.
- 농촌의 미래는 밝다고 인식하나 직업, 진학, 진로교육, 창업에는 높은 부정응답률.

청소년의 사회참여

- 사회문제와 정치에 대해 한국의 전체 청소년들이 대다수 보수적 입장 취함
- 농어촌청소년들의 보수성 보다 두드러짐

인권감수성과 인권침해

-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 인권교육경험 매우 낮음
- 인권교육의 효과도 매우 낮음
- 성적 피해, 나이에 의한 차별, 지역 차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권침해 경험 나타남

'다문화' 의식

-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응답률
- 전체 청소년들과 농어촌청소년 모두 우호적인 다문화 의식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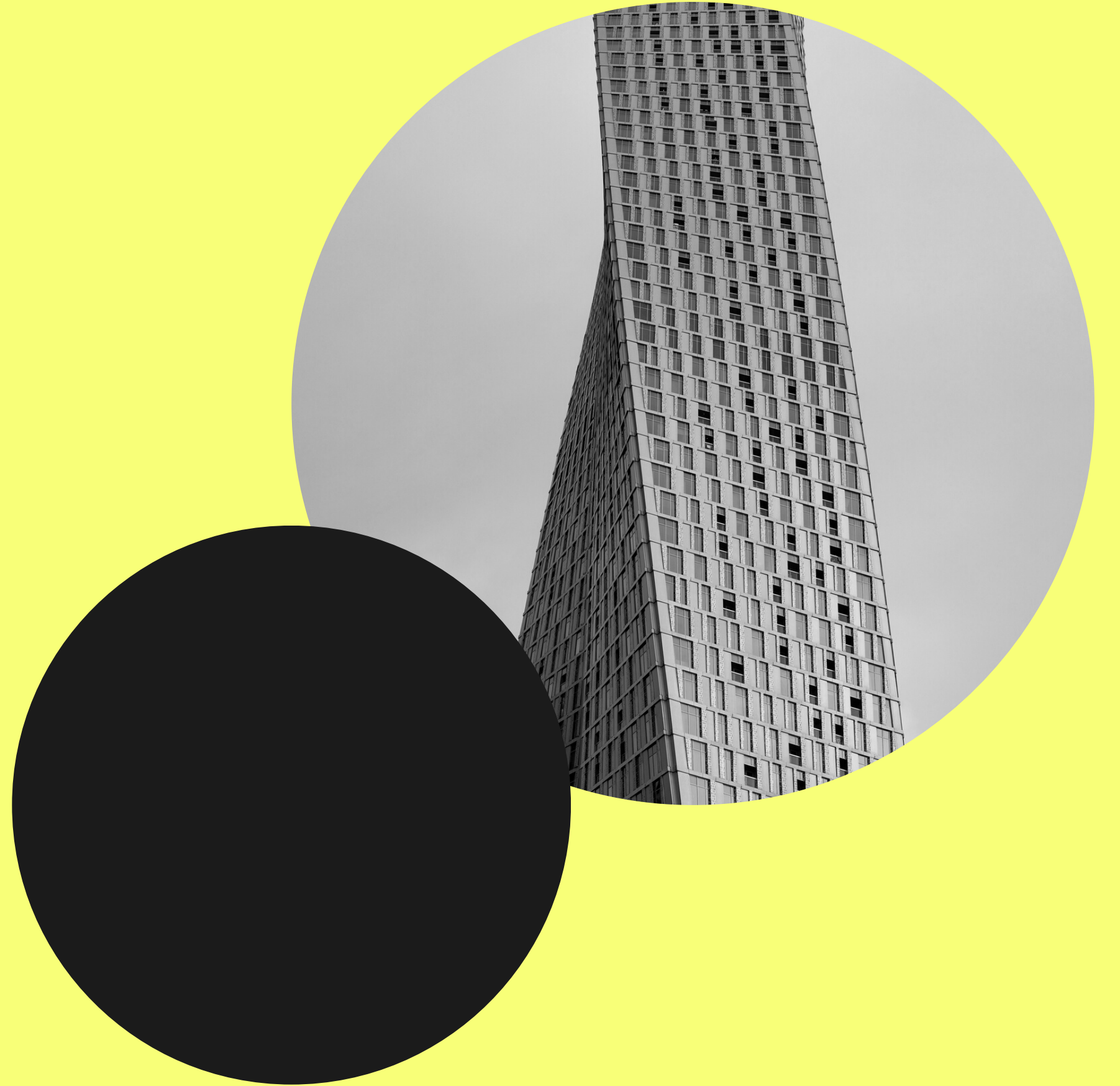
코로나경험

- 지역 무관 대체로 부정적인 변화가 동반됨
- 상대적으로 농어촌청소년은 온라인 수업 등 활동에 대해서 높은 찬성률 나타냄
- 온라인 수업을 위한 독립된 공간의 부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기존 농어촌청소년 생활 현황 연구의 시사점

1. 농어촌청소년 가구에 대한 실질적 **경제지원** 필요
2.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3. 지역의 문화 및 사회적 인프라의 격차에 따른 **문화자본 축적의 기회 격차**에 대한 실질적 보상 필요
4. 농어촌 내 여성 및 성소수자 청소년이 놓인 젠더 기반 폭력의 지형 파악 및 법적 개입, **안전망 형성** 필요
5.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교육적 돌봄**이 배태된 형식으로서의 원격수업 고려

정책 동향



기존 농어촌청소년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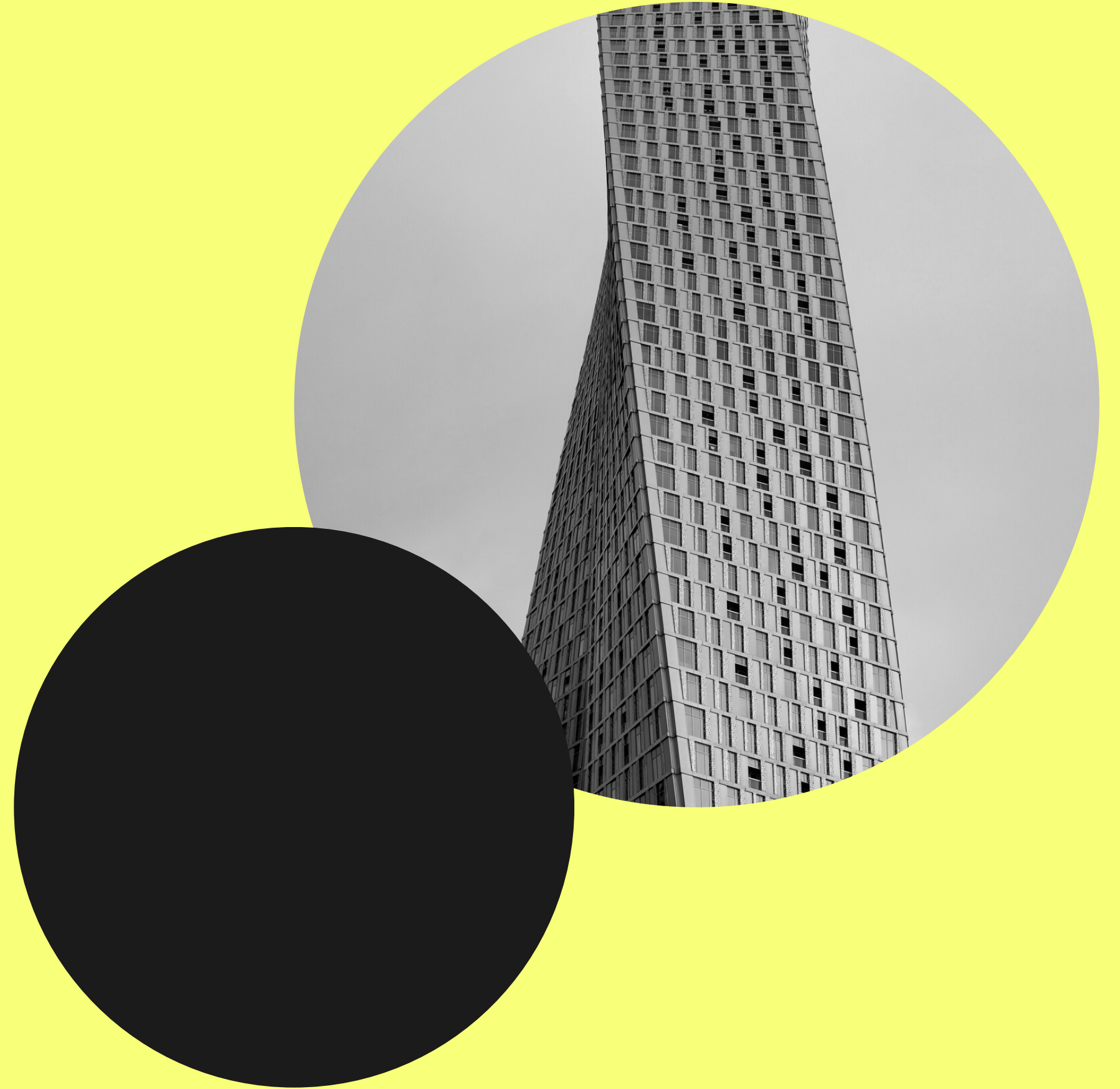
- 청소년기본법 내 육성전담기구의 설치 및 전담공무원의 임용과 자격 명시
- '농어업인 삶의 질 법'과 농어촌 정비법의 청소년 수련시설 보장 명시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과 '움직이는'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청소년 지원 정책
 - 학교 텃밭 활동, 미래농업선도고 열린 강좌 운영
- 농촌진흥청 농촌청소년 지원 정책
 - 미래농업인 육성 교실 운영,
농업유산 자유학년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자치단체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청소년 지원 정책
- 민간부분
 -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업

기존 농어촌청소년 정책 시사점

1. 정책은 청소년 시설의 보장과 성장에 대한 교육적 제도화에 치중되어 있음
(특히 **농촌 인력으로 키워내려는 지역적 연계가** 합쳐져 있음)
2. 농어촌 청소년의 경제, 사회, 문화 자본의 확충 제도화와 함께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역량 강화 모델 필요

심층면접분석 1

- 청산면 청소년
생활 현황
면접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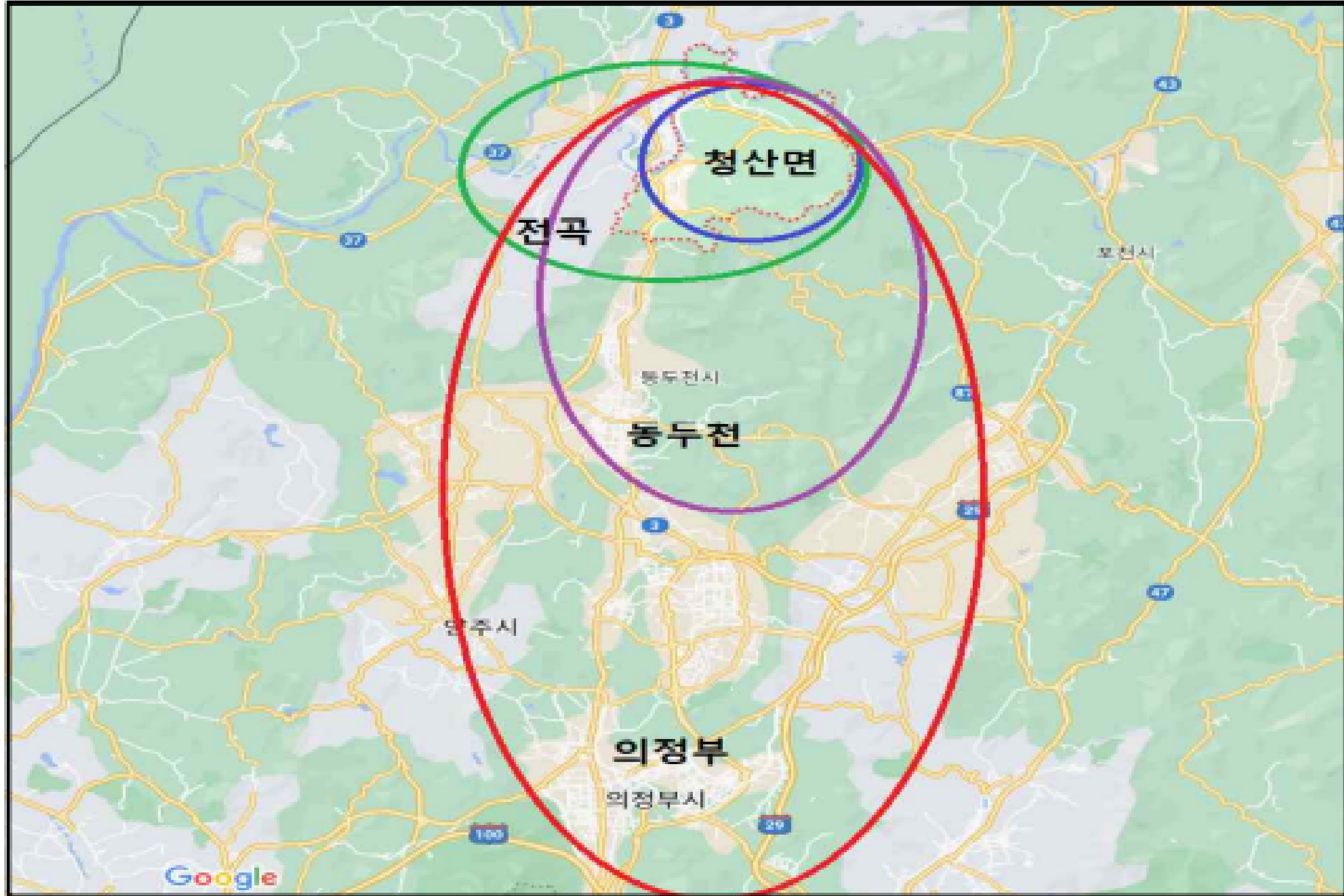


인터뷰 분석

• 이동성의 한계와 시간 사용의 전략화

1. 부모자원 및 공공자원을 이용하고, 이동자원의 유무에 따라서 시간 사용을 단순화 함.
2. 버스 등 공공 교통수단이 청소년 친화적이지 않아 청소년은 이동 자원에서 철저히 배제됨.
3. 이동 자원의 한계는 이동 시간을 강제적으로 늘리고, 이동 범위를 제한하고, 동기를 약화 시키고, 경험의 폭을 절대적으로 축소시킴.
4. '포기한다', '하지 않음'의 선택지는 '무기력'을 동반함.

집에서 시내 나갈 때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자주 안와서) 집근처에서 타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진 않아요. (질문자: 전곡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부모님이 데려다주세요?) 네. (질문자: 그러면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는 게 답답하지 않아요?) 가끔. (부모님이) 가고 싶을 때 같이 안 가주는... (질문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 네. (중등 F)



인터뷰 분석

- '연결브릿지'로서의 상위 세대의 한계와 지역 사회의 '롤모델' 부재

1. 상위 세대가 존재하지만, 한시적 경험의 폭만 늘릴 뿐
지역 사회의 롤모델이 전무
2. 청소년 스스로 가지는 구체적인 삶의 가능성이나,
롤모델 사례가 없음
3. 삶에 대한 구체성 없음은 지역에서의 정착이나 이주를
의미하지 않음. 무기력에 가까움.

약간 학습된 무기력이 크죠. 학습된 무기력이.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겠다, 해야겠다는 이런 욕구 자체가 강하지 않은 게 일단은 롤 모델이 될 만한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하고 싶다, 뭐하고 싶다고 하는데 애들이 대부분 하고 싶다는 게 군인.
(관계자 A)

경기도 연천군은 군사 경계선 접경지대로 군부대가 많아 주요 롤모델이 '군인'에 주로 국한됨.

인터뷰 분석

- '돌아다니기' 또는 보기 - 시민교육, 문화, 놀이 공간의 절대적 부족

1. 다수의 공공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동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도가 떨어짐.
2. 운영 자체가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어 청소년의 삶의 패턴에 맞지 않음
3. 공공시설의 질적 수준이 청소년의 욕망보다 뒤떨어짐
4. 시민의식, 정치의식, 인권 교육,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 교육의 내용은 전무함.
5. 자극으로 연결될 수 없는 무미건조한 지역 공간
6. 자극 - 동기의 연결고리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전무

(학교 말고는 공부할 곳이) 많이 없어요. 도서관도 여기 청산에 있는 도서관 되게 빨리 닫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도 있는데 참 애매해요. 그게 막 집에 갔다 오기도 애매하고, 여는 시간도 애매하고, 닫는 시간도 애매하고(중략) 5시 반 되면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6시에 다시 들어와야 해요. (중략) 아침에는 9시까지 열었어요. 근데 여는 것도 주말에 가면 12시부터 열어요. 언제 공부하라는 거야.(웃음) (고등 F)

인터뷰 분석

- 지지와 방임 사이 : 부모 자원

1. 농산어촌의 경우 대도시와 달리 교육 정보가 산발적이고 도달될 때까지의 루트가 현저히 작음. 따라서 부모의 관심 여부에 따라서 개별 청소년에게 도달하는 정보값이 현저히 차이남.
2. 부모 자원이 약한 경우 방임은 아니지만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것도 아닌 모호한 지지의 경계에 있음.
3. 학습 뿐만 아니라 진로, 삶의 방향성, 정치적 역량, 시민 역량 등 모든 정보값 도달이 유사한 패턴.

학업 같은 경우는 뭐 쌤들과도 진로 상담 그런 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런 학업 관련해서는 일절 터치를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는 것도 그냥 너 자유지 굳이 안 가도 된다고 (고등 C)

인터뷰 분석

- 공교육의 지원, 그리고 그 이후 없음

1. 기존의 진로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욕구는 다양해짐. 그러나 단계적, 심층적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음.
2. 대다수의 교육 항목 예산이 '문화' 영역으로 치중되거나, 1회성 이벤트성으로 휘발됨.
3. 주로 '학교' 공간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복적으로 쓰여지거나, 교사가 바뀌면 지속되지 못하는 등 시스템 상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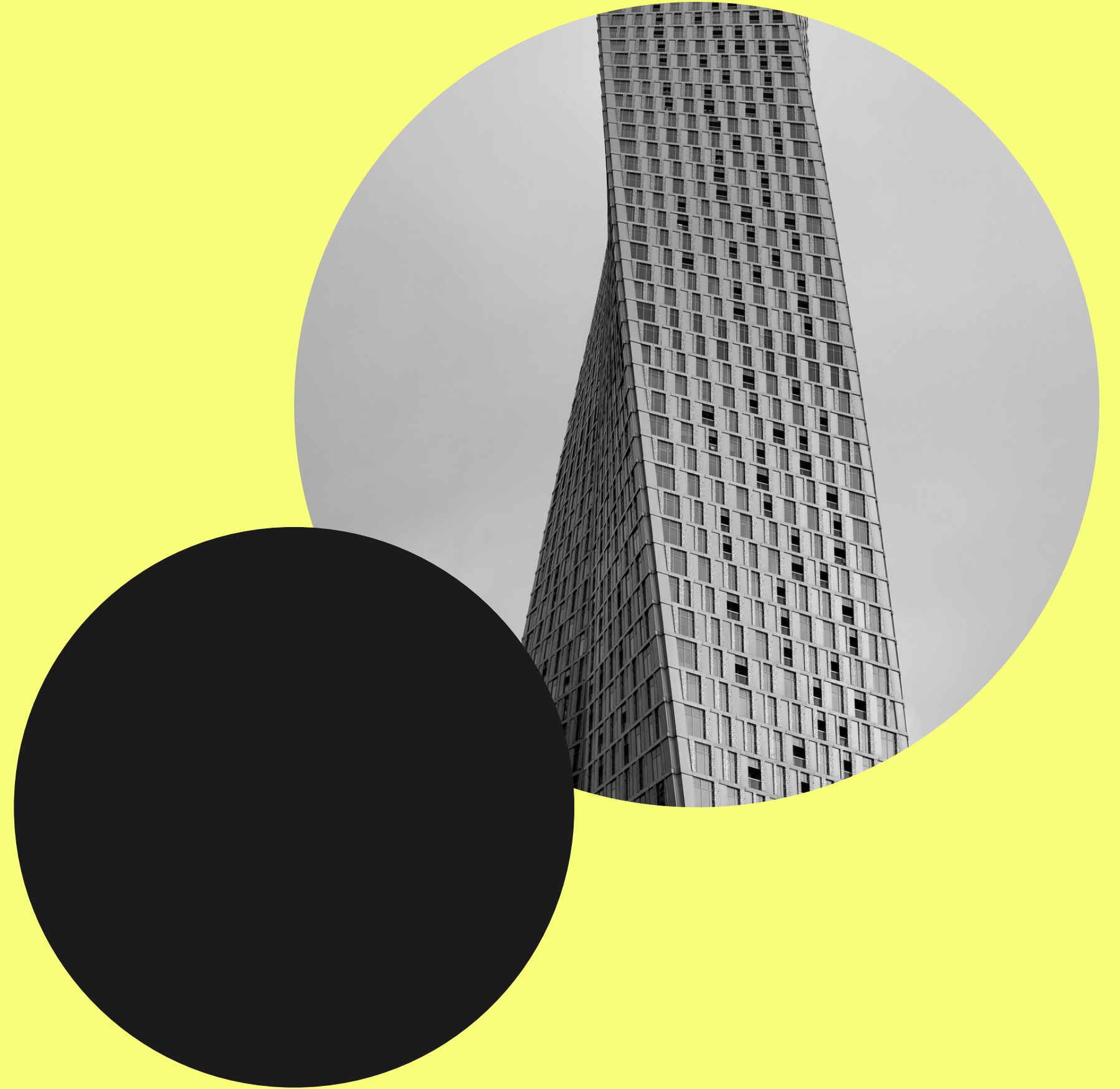
쓰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애들한테 보탬이 될까?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돈을 줄이고 그 돈을 지역에 있는 어떤 청소년 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 내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가. 근데 학교의 학업 능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돈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 투여가 지금 조금 과하다. 소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는. (관계자 A)

시사점

1. 자극과 정보값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동기'의 발현으로 연결되기 어려움. 따라서 **자극의 연속성** 담보 필요.
2. 거점 인프라 구성과 설계에 대한 거시점 관점 탑재. 이미 있는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함께 외부 동력을 통한 새로운 **인프라의 양적 확대** 도모.
3. 청소년 **이동성**의 확보
4. 외부 '**사람**' 자원에 대한 적극적 유치와 내부화.

심층면접분석 2

-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실험사례
분석 결과**



기존 청소년 기본소득 지원 사례

• 충북 옥천 기본소득 실험

1. 지역 내 청년모임 TOO에서 출발, 충청북도의회 도의원과 관외 청년조직인 서울시 청년허브가 결합하여 실험 진행
2. 2020.9~10 / 3주당 10만원씩, 총 2회 지역화폐 발행
3. 전교생이 18명인 안내중학교 선정

시사점

- 부모의 허락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 기본소득을 타인과 나누면서 자존감 향상,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
- **놀이문화의 변화, 공동체를 위한 소비 증가**

한계

- 적은 액수, 2회 제공이라는 규모상의 아쉬움
- **지역화폐의 한계(사용처와 기한의 제한)**
- 만14세미만 청소년은 본인 명의로 지역화폐 카드 발급 불가
- 최종 조례 제정시 '바우처' 사업으로 변화해 취지 퇴색

기존 청소년 기본소득 지원 사례

- 충북 보은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 실험

1. 전교생 41명, 6개 학급 / 판동초등학교 학생 대상 실험
2. 팔판동 사회적협동조합에서 100만원 기부금 지원 - 이를 토대로 기본소득실험 진행 / 이후 학교 예산으로 진행
3. 2020.10월부터 일주일에 2천원씩 지급, 11월부터 3천원씩 지급, 직접 찾아가도록 지원

시사점

- '용돈'이 아닌 '기본소득'이라는 점 강조
- 조건없이 모두에게 지급하여 낙인효과 피함
- 기본소득 도입 이후 매점 이용 활성화 뿐만 아니라 기부문화도 생김
- 공동체와 어른에 대한 안정감, 자립, 여유에 의한 만족감 향상

한계

- 사용처가 단 한 곳으로 극히 제한(학교 안 매점)되었다는 한계는 있지만 변화는 큼.

기존 청소년 기본소득 지원 사례

- 청소년 자립팜 '이상한 나라'의 기본소득실험
 1.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이 2017년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연구 진행 후, 청소년 자립팜 '이상한나라'의 제안으로 기본소득 시작시 제정 지원
 2. 2018년, 2019년 2년간 매월 1일 총 10인에게 증빙 필요없는 30만원을 지원 / 기본소득의 이해와 쟁점 나누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

시사점

-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돈에서 거리두기"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기 시작
- 친밀한 관계를 가꿔나가는 물적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자 긴급지원으로도 활용

기타 유사 사례

• 고성, 옥천, 청양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1. 바우처 카드지만 금액의 차등없이 선별 절차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취지와 일부 통용됨.
2.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에서는 사용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있음.

<표 IV-1> 청소년기본소득 기타사례

	경남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목적	고성군 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진로체험, 건강, 지역사회활동 참여지원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청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문화, 체육,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경제, 기타 (음식점, 편의점, 카페) 참여 지원
시행 시기	2021년 5월	2022년 4월	2022년 1월
지급 대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3세~18세 청소년으로 2,511명 (전체 대상의 98%)	만 13~18세 청소년으로 약 2,300여명	청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13~18세 청소년 1,023명
지급 액수	13~15세의 청소년에게는 매월 5만원, 16~18세의 청소년에게는 매월 7만원	13~15세 청소년에게 연 7만원, 16~18세 청소년에게 연 10만원	13~15세의 청소년에게는 매월 5만원, 16~18세의 청소년에게는 매월 7만원
사용처	고성군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교육·문화·진로·체험·건강 분야 862개 점포	관내 가맹점 지정을 받은 독서실, 서점, 문구점,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이·미용실, 안경점 등	관내 가맹점 지정을 받은 영화관, 헬스장, 볼링장, 예체능학원, 서점, 이·미용실, 안경원, 목욕탕, 교복점
특이점	윤지성 고성군 청소년팀장은 "수당을 먹는 데만 쓸 거라는 어른들의 우려와 달리 아이들은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돈을 썼다"고 평가하지만 애초에 마트 및 편의점, 음식점에서 사용은 최대 30%로 제한되어 있음. 그 결과 2021년 전체 사용금액 17억 8402만원 가운데 17.5%가 서점에서 사용됨.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연단위 지급으로 지급액이 적음	음식점, 편의점, 카페에서는 바우처 지원액의 20% 이내 사용 가능. 2023년에 3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나 상한제를 폐지하지는 않음.

기타 유사 사례

- 대전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
 1. 2022년 1월 <어린이 용돈수당> 도입. 관내 주소를 둔 만 10~12세 어린이 4,300명에게 지역화폐로 매달 2만원씩 용돈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2. 지역화폐 가맹점 중 서점, 문구점, 완구점 등에서만 사용 가능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표 IV-2〉 2022년 청산면 기본소득 지급 내용

지급 대상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단, 경기도 지급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첫 지급 당시 주민 3452명에게 지급
지급 방식	지역화폐 1인당 15만원 (연 180만원). 만 18세 미만은 부모에게 대신 지급
재원 출처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부담 비율로 올해 약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사용 범위	청산면 내 사업체(사행성,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병원, 약국, 보습학원은 예외적으로 군 관내 사용 허용. 2022년 4월 말 현재 190여 곳으로 파악됨
사용 기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미사용 금액 자동 반납 처리)

• 특징

1. 월 15만원 지원 금액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에 드는 비용을 보완한다는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보다는 약함
2.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 개인에게 균등하게 지급, 어떤 심사나 조건없이 지급된다는 기준에는 미달
3.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사용처, 지출 시기, 지출 방식의 제약 있음
4. 청소년은 지급 대상자이지만 직접 지급되지 않고 부모를 거침

청소년 경험 분석

- 호명된 '주체'로서 나에 대한 인식 재정립 시도
1. '나의 몫'이 주어진다는 부분에서 '주체'로서 자기 인식의 확장으로 연결
 2.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역 내의 시선에도 변화 발생

자기네 앞으로 나오냐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희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가족이 다섯 명이라서, 우린 다섯 명이 다 나오고, 그리고 너희들 자녀 한 명 당 한 명씩 이 금액이 다 나온대. 이렇게 말해줬더니, 아이들이 되게 놀라워하더라고요. 자기네한테 혜택이 있다. 라는 게. 놀라워하더라고요. (학부모 B)

아이들까지 그 정도로 나와서 어른하고 똑같이 비중을 맞춰줘서, 뭐, 감사했죠. 아이들도 이런 또 구성원으로 또 이런 또 대우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에. (학부모 A)

청소년 경험 분석

- '죄책감'에서의 해방과 가족, 지역내 상호작용-관계의 확장

1. 부모 세대의 경우 가족 및 지역 내 상호작용이 확장되었고, 삶의 여유가 증가되었다고 밝힘
2. 청소년세대 역시 주변의 관계망을 확장시키거나 강화시키는 현상 보임
3. 특히 '돈'을 쓴다는 죄책감에서 일부 해방됨.
관계가 확장됨에 있어서 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됨.

전국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계속 부럽다고 하고, 같이 놀러 가서 사줄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편의점 같은데 가면 엄마가 애들 이걸로 사주라고 하셔서 많이 사주는 것 같아요.(중등 B)

저는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기본 소득, 여기 주변에 사는 애들이 다 기본 소득을 받아서 그 기본소득으로 어디 가서 만나자는 이야기도 했었어요.(중략) 기본소득은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깐 그 돈으로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아니니까 애들이 더 자주 더 많이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아요(초등 I)

청소년 경험 분석

• 삶의 다양성과 '자극' 확대

1.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고, 삶의 영역을 보강하는 역할로서 기본소득이 활용됨
2. 새로운 시도, 경험의 영역으로 전이 도모

기본 소득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 지금 기본 소득의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돈 쓸 데가 너무 없다는.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많은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맛집들 같은 거를 이렇게 청산 전체를 다 둘러보면서 맛집 탐방을 하고 저희가 지도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본 소득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서. (중략) (활동 하다보면) 안 가봤던 곳도 가끔 그냥 버스로 지나갈 때만 봤던 그런 게 아니라 안쪽까지도 들어가 보고 '와, 이런 데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신기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좁고 정말 사골인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생각보다 넓은 것 같은데 왜 이 땅을 이렇게밖에 못 쓰는 지 약간 아쉬운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마을에 대한 그런 거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고등 C)

청소년 경험 분석

-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 상승 및 터전으로서의 고려

1. 양적으로 청산면 인구 비율이 높아진 것과 동시에 질적으로도 지역 구성원의 평가가 향상되는 것 확인
2. 기본소득 이후 지역의 가치가 좀 더 높은 순위로 올라옴
3. 청소년이 지역 구성원으로서 삶의 터전으로 고려하기 시작

가족들이랑도 이야기하는데 일 하다가, (외부에서) 다른 일이든 뭐든 나와서 하다가 심심할 때 여기 집에 돌아와서 여기서 카페 하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청산면에) 카페가 많이 생기는 것 보고 여기서 딱 이렇게 여기 산 보이게 해서 하면 잘 되겠다.
(고등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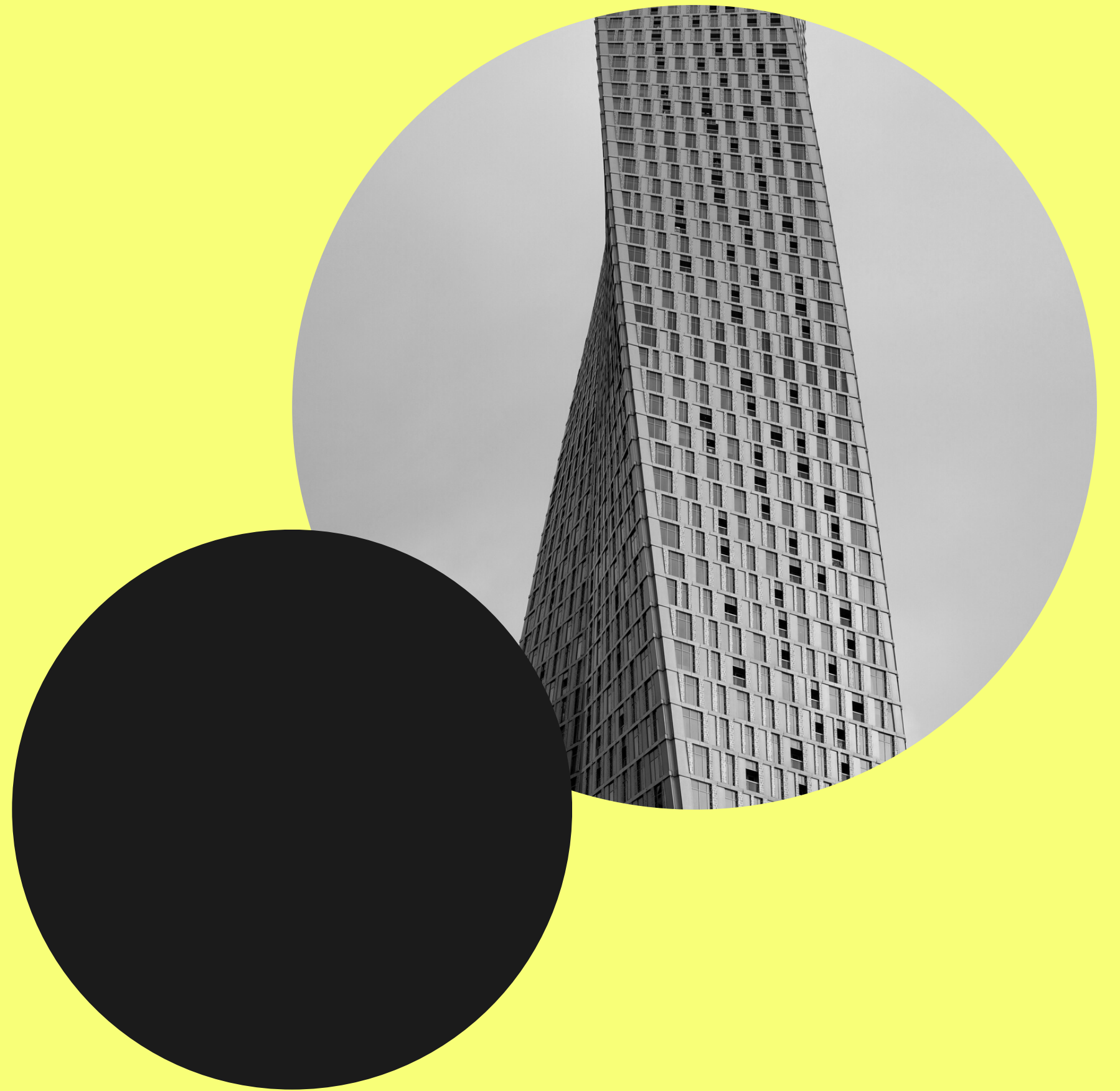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 실험의 변수

- 기본소득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이해 전무
- 청소년 직접 지급 불가의 한계
- 청소년이 배제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사각지대
-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청소년 경험 확장의 제약 발생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 실험의 청소년 경험 시사점

- 청소년기본소득을 통해서 공공-민간의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할 수 있음.
- 청소년에게 '동기'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폭제로 작동 가능
- 청소년의 지역 애착에 영향을 끼쳐 농촌 정주 인구로서 남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

정책 제언



전체 종합

- 기존의 정책들이 '지역성'이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압도, '미래의 영농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영역에 치중되어 있음. 따라서 지역성에 압도되는 것이 아닌, 실제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인프라의 부족, 행정편의적 운영 등은 이미 지적되어온 바지만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할 지점은 '동기의 격차'가 부분임. 특히 동기의 발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함. 동기가 발현되지 않음으로 박탈감도 부재에 대한 고민도 없음. 즉, **자극**을 어떻게 줄 것인지, 어떻게 **동기**로 연결시키고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 이 '동기'를 주는 한 방법으로서 '기본소득' 실험은 유의미해 보임.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가운데, 청소년에게는 '부모'를 통해 지역화폐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함. 더 큰 자극과 경험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기본 운영 원리에 충실해야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사용처를 확장하고 제한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제안

1. 농산업, 어업의 잠재적 인력으로서 농어촌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대대적 전환 필요
2. 지역분권, 지역 자치 시대 행동/활동주의 관점으로서 농어촌 청소년 정책 마련 필요
3. 관계론적인 정책설계전략 필요

농어촌청소년 정책 과제 제안

1. 정기적인 생활실태 욕구조사 필요
2. 국가균형발전 측정 지표로서 아동, 청소년 인권 범주를 부분지표로 지수화하여 중앙과 지방행정 모두에서 청소년집단이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원
3. 청소년 지원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고민 필요
4. 인권의식 향상의 기회 구조 필요
5. 청소년 이동권 보장 방안 필요
6. 농어촌청소년대상 교육과 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 구축
7.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정보의 비판적 수용 필요
8. 세대를 잇는 청년활동가 발굴과 지원 필요